

보도시점 2026. 6. 5.(금) 배포시점 배포 2026. 6. 5.(금) 14:00

## “인공지능(AI)으로 1분 만에 챙기는 통신 꿀팁”

- 이동통신3사와 손잡고 유용한 정보 담은 짧은 영상 ‘국민통신꿀팁’ 연재 시작 -

‘부모님 휴대전화에 스팸·보이스피싱 번호 차단해 드리기’, ‘공공 와이파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통신 정보가 1분 안의 짧은 영상으로 연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5일 에스케이텔레콤(SKT), 케이티(KT), 엘지유플러스(LGU+) 등 이동통신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협력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통신 정보를 인공지능(AI) 기술로 만든 짧은 영상(숏폼)으로 안내하는 ‘국민통신꿀팁’ 연재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정부와 통신업계가 복잡한 통신서비스 정책과 생활밀착형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유익하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동 홍보 캠페인이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루하지 않게 핵심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영상은 1분 이내의 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된다.

첫 번째 영상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이동통신사별 스팸·보이스피싱 차단 앱을 활용해 부모님 휴대전화의 악성 전화를 사전에 막는 방법을 안내했다.

이어 6월에는 다가오는 월드컵 시즌에 맞춰 야외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안전하게 접속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방미통위와 통신업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성이 높은 주제를 공동으로 선정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짧고 흥미로운 영상을 2~3주 간격으로 순차적으로 게시할 계획이다.

해당 영상들은 방미통위와 이동통신 3사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동시 공개되며, 향후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 휴대폰 구매 시 변경된  
 시책 안내 ▲휴가철 배터리 부족 시 비상 충전 방법 등 다채롭고 실용적인  
 주제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최근 인공지능과 누리소통망(SNS)을 악용한 교묘한 가짜뉴스가  
 늘어나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가려내기 어려워진 만큼, 누구나 공인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하고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캠페인의 취지  
 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 반상권 대변인은 “정부와 민간이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번 활동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유익한 통신 생활 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국민통신꿀팁 연재 영상’ 대표 이미지

담당 부서	대변인 정책홍보팀	책임자	팀 장	박귀식 (02-2110-1330)
		담당자	주무관	김유미 (02-2110-1349)



붙임

## '국민통신꿀팁 연재 영상' 대표 이미지

유튜브 링크: <https://www.youtube.com/@withKMCC>

1. 5월 : I am spam 편 (부모님 휴대전화에 스팸·보이스피싱 번호 차단해 드리기)



2. 6월 : 중계 편 (공공 와이파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법)

